

대행 스님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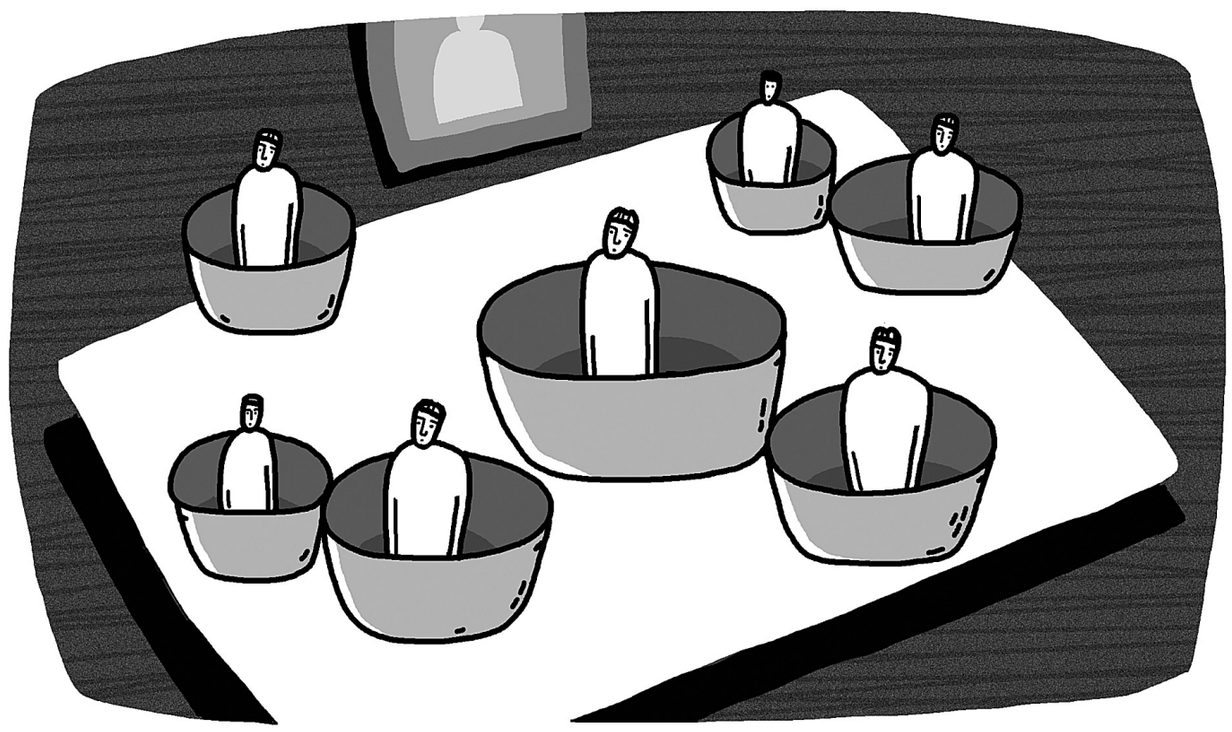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주인공에 대하여

질문 대행 큰스님께서는 늘 한마음 주인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불성(佛性), 자성불(自性佛), 자성(自性), 법신(法身)이라는 용어도 쓰셨는데 한마음과 불성, 또는 법신, 주인공과 자성 또는 자성불 사이에 의미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큰스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용어들을 저희가 특별히 구별해서 들어야 하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마음!" 한다면, 이게 말을 하자면 길지요. 허허허…. 태어나기 이전부터 악업이나 선업이나 업식이 뭉쳐서, 사람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태어나기만 하면 '고(苦)' 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다 업식이 돼서 몸 안에 전부 부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이 많은 업식의 문제들을 어떡하면 한데 합쳐서 한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업식이라는 거나 마음이라는 자체, 의식이라는 자체는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죠? 체가 없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한다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건 평등(平等), 평등성을 말하죠.

예를 들어, 아파서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건 자연적이죠, 아프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냈을 때는 바로 불성으로 돌아가죠, 불성으로. 그 마음을 한데 합친, 그러니까 불기둥이라고 해도 되죠,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佛)이니까요. 마음들이 한데 모아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개념은 조금조금씩 달라도 한 얼굴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다 한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끄달리지 마시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즉 고정됨이 없이 나로부터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변함없이, 나 자체 불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돌아가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있죠. 그거를,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게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론으로 헤아리기 이전에,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지 따로 있습니까?" 하고선 그렇게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전체 포괄적인 뜻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부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무생실참의 도리, 이걸로써 자기가 자기를 자극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오직….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하하…. 자기가 불러 놓고 자기가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는데,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릇 닦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참의 도리를 아마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아! 바로 나는 지금 유생(有生)이 아니라 무생(無生)이다. 무생이 있음으로써 유생이 있는 거지, 유생이 있어 가지고 무생이 있는 게 아니다. 무생은 바로 귀신 방귀씨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하하하…. 씨는 없으면서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있으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봉으로 탁 꽂아서 움쩍 안 하면서도, 조금도 어김없이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 묘한 도리입니까.

천도재에 어떻게 마음을 내는지요

질문 절에서 예불 끝나고 나서 가끔씩 천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옆에 남아서 같이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우가 그렇게 천도재 지낼 때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체를 다 둘로 보지 않고, 영가도 나와 둘로 보지 않고, 또 천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로지 그 근본 자리에서만이 진리의 세계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관(觀)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올바로 대답을 한 것인가요?

답변 내가 재사를 지내거나 천도재를 하거나 이럴 때 왜 떡을 둥그렇게 몇 조각 해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반찬들을 해 놓고 그렇게 뚱땅거리고 지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하고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둥그렇게, 그것도 안 해 놔도 되는 건데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둥그런 떡을 하나 해 놓고 삼색 과일만 한 그릇에 그냥 놓고 초 향만 켜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어 놓은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도 먹게 해 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거든요. 성가시게 군다 하더라도 잘되기만 하면 좋은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떡 하나예요. 한마음 하면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령들을…. 이런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똑 알맞고, 일체제불의 마음을 이 큰 그릇에다가 넣어도 또 크면 큰 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부모에게 재사 지낼 때에 조상들이 살 때의 그 습기를 다 떼게끔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굴려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려서 다 세척이 되듯이 깨끗하게 모두 나오죠. 왜, 세탁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떡 하나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는 되남더라 이런 말이에요.

'기'란 무엇이며 불법 공부와의 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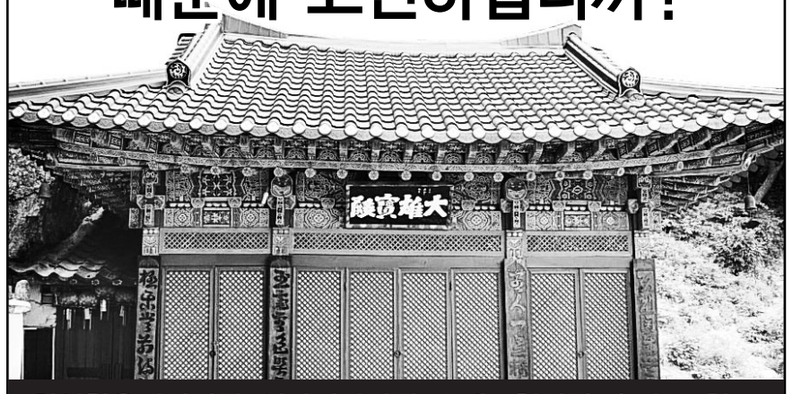
질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행법 중에는 몸의 기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공법을 수련하는 것과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기'란 무엇이며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기'라는 건 옛날에도 그렇고, 스님네들 아니더라도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를 가지고 몸을 다스렸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는 기를 단전으로 해서 기를 이렇게 모아서 풀어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세상에 어려우냐. 지금 단전을 하고 기를 모아서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이 무지하게 옵니다. 머리로 기가 그냥 올라가서 영 일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몸이 비틀리는 사람이 없나,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귀로다가 그냥 그 뜨거운 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가정에 아주 파탄이 오게 되는 사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몸의 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몸의 기를 잘 다스리려면, 정돈을 하고 다스리려면 바로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법(觀法)입니다. 그거는 몸을 다스리는 거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든 그 의식들, 생명들 그것들이 아랑곳이 없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써 내가 꼭 '너만이 알아.' 할 때에 '아, 너고 나고 없구나. 모두 나야!' 하고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 A18면으로 계속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 죽순 식물성 탄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임해 밥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임해]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닙니다

☞ A17면에서 계속

러니까 이 마음에다 놓으면 이 누진(漏盡), 머리로다가 통신이 돼서 그 머리로 통신이 되면 하달이 돼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을 만하냐. 이거는 그 속에서 이 주인공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저기서 모자라면 여기서 보태고, 여기서 모자라면 저기서 보태고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깐 몸을 건강하게 다룰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살이 쪘으면 살을 뺄 수도 있고, 살을 찌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잘못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몸뚱이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몸이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행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나무, 즉 무정물들도 또는 저런 과일 나무들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용이죠. 그러니 몸도 얼마든지 자재로이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두 잠재의식이 관습에 의해서 돼 있고,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그냥, 그냥 탁 맡길 수가 있습니다.

놓고 가다 보면 모자란 사람 같아…

질문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놓는 것은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진 상태일 때 놓는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닥치는 그대로, 닥쳐서 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 할 것도 없어서 때로는 무덤덤하고, 달리 생각하면 그저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남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 놓고 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론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거나 이상한 태도로 비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똑똑한 놈보다 좀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싹을 틔운다고요. 부처님께서도 아주 모르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만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던 사람에게 빗자루 하나를 주고 쓸라고 해서 그 마음을 틔게 한 사실도 있듯이….

그래서 '앞도 뒤도 없다' 하는 이 뜻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그 씨는 없어지죠. 씨는 싹이 돼 버렸죠, 벌써. 그 씨가 또 되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연방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붙을 것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이 지어 가지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나오지 못해 애를 쓰고 그러는 거지, 그 마음에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오면서 관습에 의해서, 이사를 가면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느니 서쪽으로 가야 되느니, 손이 달렸느니 발이 달렸느니, 하하하…, 또 삼재가 들었느니 온통 자기네들끼리 그 관습을 그냥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매달려 가지고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것도 붙을 게 없는데…. 다들 안 그렇습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 관습을 따라야 하는지. 마음에는 붙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떼지 못하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음을 걸어오거나 말을 하거나, 만나든가 먹든가 모든 것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도 그게 어디 붙을 게 있습니까? 금방 "아버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돼 가지고 그냥 하고, 또 "여보!" 그러면 그냥 남편이 돼 가지고 금방 돌아가고,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이 돼 가지고 돌아가고, "아무개!" 그러면 친구로 돼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 그냥. 붙을 게 없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힘이 부족하니까 마음으로 '어이구! 저 친구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는 게 걸리면 거기다 놓고 '둘이 아닌 까닭에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놓고 유하게, 부드럽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 편안하고, 그쪽으로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묘한 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저쪽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쪽 사람이 '아유! 그러는 거 그저 주인공만이 풀 수 있어.' 하고 놓고 미워하질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니까 아, 금방 그쪽에서 오므라졌던 게 펴져 가지고는 선물도 하고, 그냥 좋아지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르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얘깁니다, 이렇게 쉬운 법을.

부처님께서 생활 속에서 바로,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왜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그리고 놓지 못하는 겁니까? 놓고 돌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돈벌레 갈 때에 잘 가더라고 그랬죠. 잘 가면서도 누가 말을 하면 꼭 걸리는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삐를 쥐고 소가 남의 파밭에 들어가거나 남의 농사지어 놓은 데를 들어가거나 이런다면, 고삐를 잡아당겨서 다스려 가면서 끌고 가야 되니까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라 이 소립니다. 잘못 나가 걸랑은 다스리고, 잘 나가걸랑 감사하게 생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그대로 놓고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누가 붙들고 오셨습니까? 발자취를 지금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차가 굴러오는 거지금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 **모두 잠재의식이 관습에 의해서 돼 있고,**
>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 저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될는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단지 나와 내 가정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하는 몇 가지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다운 불법이 아니라 또 다른 기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의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으니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가서 빌지 말고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 보세요. 아픈 것도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산다면 자기 내면이 그대로 의사가 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찰나에 관세음보살이 돼졌다가 칠성이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이렇게 한생각에 마음이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네 마음 한생각에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것을 항복을 받아서 모두 내줘도 줄지 않고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세계를 파악한다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주먹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즉시 무에서 유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99%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돈이 드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피곤하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참선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자기 자리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그것이 좌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마음이 복잡하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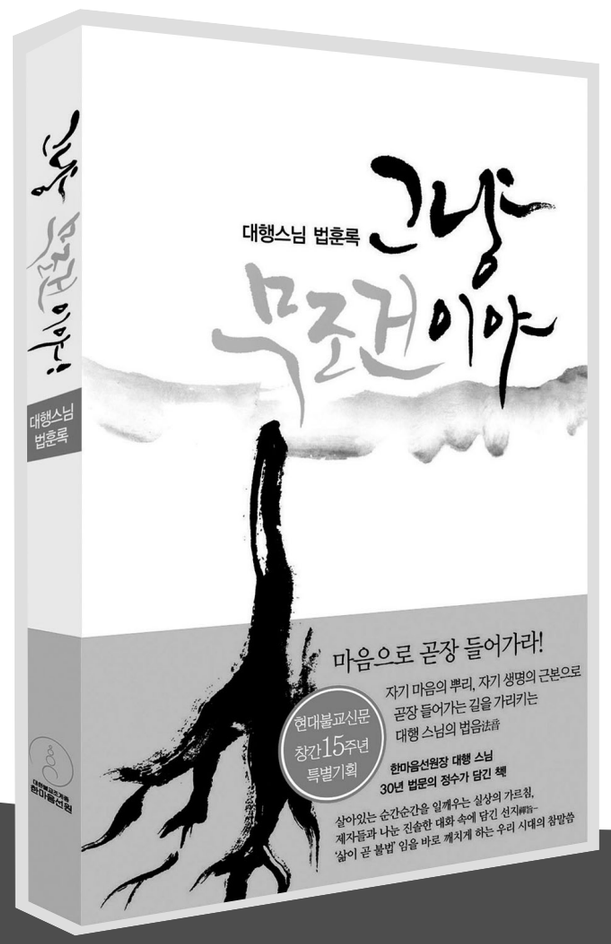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고무줄 같은 인생에 뜬구름 같은 이 모습이 다 흩어지고 나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력, 나의 마음의 차원을 그대로 가지고 또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물질로 치달아서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 영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몸에 있는 중생을 제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과로써 뭉친 선악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착이 줄줄이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영혼들이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를 기다리고 죽 섰으니, 오백 생을 기다린들 배가 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아리 속에서 지금 구르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지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저 언덕을 넘어서 저 물을 건너가세. 같이같이 건너가세." 하는 뜻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것도 역시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자기의 좋고 나쁘고 한 그 마음, 자기로부터 수북하게 나오는 그 악마 같은 마음, 요만한 것 가지고도 괜히 신경질 내는 마음, 남의 탓을 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이것들이 그냥 배어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생전 가도, 오백 생이 가도, 천년만년이 가도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놓고 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내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어디다가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깃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를 잘되게 하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조절하려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요, "말아라" 해서 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무슨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보이는 데서 남한테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욕심에 처해 있는 거고 상인이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함이 없이 하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 과학도 물질 만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린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신계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살기가 급급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적었던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걸 보십시오. 또 화산이 일어나도 과학자들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 연구함으로써 많은 이득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과 오고 감이 없는 오신통 자체가 바로 재료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